

## 李忠武公과 新安郡 岩泰島

김 무 진 김 규

李忠武公이 丁酉年(1597年) 4月 1日 獄門을 나와 白衣從軍하시어 同年 8月 3日 이른 아침에 三道 統制使의 御命을 받고 順天을 거쳐 寶城을 지나 8月 17日 처음 全南 地方에 발을 디디셨다.

李忠武公은 康津郡 고군면에 이르셨고, 곧 120名의 軍士를 이끌고 長興 會寧浦에 當到하자 戰線이라고는 겨우 10척 뿐이었다.

8月 24日 海南 梨津을 거쳐 正午께 어란포에 이르셨고, 8月 29日에는 벽파진에 到着, 다음날 진을 치셨다.

이 때 戰船은 깨어진 것을 합해 모두 12척이었다.

벽파진에서 16일간 머무신 후 9月 15日 敵艦 135隻(行錄에는 333隻)을 맞아 接戰, 겨우 10隻만 살아나게 했는데 이것이 명랑해전이다.

李忠武公은 이 海戰에서 大勝한날 新安郡 岩泰面 唐沙島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17日 智島面에 들르셨다가 靈光 法聖浦로 내려 가셨다.